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25.(일) 배포 2023. 6. 25.(일)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4주기 추모식

- 26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5일 “「백범 김구 선생 제74주기 추모식」이 26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정양모)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 출생인 백범 김구 선생은 1894년 동학군의 선봉장을 역임한데 이어,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준·이동녕 등과 함께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1908년 독립지사들의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기울어가는 조국을 구하고자 의병활동과 계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김구선생은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마침내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했지만, 1949년 6월 26일 백범선생이 개인 사저로 사용했던 경교장에서 안두희(案斗熙)의 흉탄에 맞아 서거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온겨레가 애국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던 백범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바탕”이라며 “선생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는데 보훈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추모식 개요 및 식순
2. 백범 김구 선생 주요공적

담당 부서	보훈선양국 기념사업과	책임자	과 장	용교순 (044-202-5530)
		담당자	사무관	박병은 (044-202-55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백범 김구 선생 제74주기 추모식**

□ 개요

○ 일　　시 : 6. 26.(월) 11:00

○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 주　　관 :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정양모)

○ 참석인원 : 약 300여 명

○ 식　　순

구　　분	내　　용	소요시간
추모식(40′)	○ 입장 및 개회	(01′)
	○ 국민의례	(04′)
	○ 추모식사　　* 기념사업협회장	(05′)
	○ 추모사　　* 국가보훈부 장관, 광복회장	(15′)
	○ 추모가　　* 숙명여대 합창단	(04′)
	○ 헌화	(10′)
	○ 폐회	(01′)

붙임2 **백범 김구 선생 주요 공적**

백범 김구 선생(1876.8.29.~1949.6.26.)은 황해도 해주(海州) 백운방(白雲坊) 기동(基洞)에서 출생하였다.

1893년 동학(東學)에 입도한 후 1894년 팔봉 접주(八峰接主)로 임명되었으며, 9월에는 동학군의 선봉장이 되어 해주성(海州城)을 공략하여 탐관오리들을 추방하려고 했으나 불행히 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1896년 2월에 일본군 중위를 찔러 죽이고,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왜놈을 죽였노라"는 포고문을 길거리 장벽(墻壁) 위에 대서특필하고 자기 성명과 주소까지 명백히 기입해 놓은 뒤 그 곳을 떠났다. 그 뒤 5월 11일 집에서 체포되어 해주옥에 구금되었으며 1897년 7월에 사형이 확정되었고, 다음 달 광무황제(光武皇帝)의 특명으로 사형 직전에 집행정지령이 내려짐에 따라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준(李儁)·이동녕(李東寧) 등과 함께 구국운동에 앞장섰고, 1908년 독립지사들의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맹렬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19년 3.1 만세 시위 사건에 가담한 뒤,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이동녕을 만나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에 취임하였다.

1924년 4월 9일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리로 임명되었으며 1926년 12월에는 임시정부의 원수(元首) 국무령(國務領)에 취임하였다.

1928년에 이동녕·이시영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1930년 국무령에 재선되었으며, 1931년에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그 단장에 취임하였다.

1935년 11월 국무위원으로 재선하였으며 이동녕·조경한·차이석 등과 함께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을 창당하였고, 1940년에는 중경에서 광복군 총사령부의 성립식을 거행하였으며, 임시정부는 기강으로 옮긴 뒤, 5월 전당대회를 개최, 각 단체를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그 집행위원장에 취임하였다.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국무위원 일동과 함께 환국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의된 신탁통치에 대한 반탁 국민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가 조직되자 부총재에 취임하였다.

1947년 1월 비상국민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어 부주석에 취임하였으며 5월 제2차 미소공위가 열리자 반탁 투쟁위원회의 활동을 이승만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11월에는 유엔 감시 하의 남북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 결의안을 지지하였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최고 명예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